광주 원룸촌 강력범죄 기승

CCTV 없고 치안 허술 '방범 사각'

최근 잇단 성폭력·절도 사건 '불안'

젊은 여성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촌'이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 원룸촌 일대에서 강도·강간 등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경찰의 대응은 허술하기만 하다. 방범용 CCTV도 설치되지 않은 채 '방범 사각지대'로 전락하면서 원룸 거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5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 밀집지역에서 만난 김모(여·22)씨는 "대학교 인근이어서 여대생들이 많이 사는데, 간혹 어느 원룸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는다"며 "밤늦게 귀가할 때면 일부러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집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경찰에 붙잡힌 '광주판 발바리'의 경우 지난 1년여 간 서구 관내 반경 200m 이내 원룸 10곳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강간·강도행각을 벌여왔다. 범인 김모(32)씨는 자신이 과거 거주했던 인근 지역의 원룸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주 표적이었다.

더욱이 이 일대에서 일어난 6건의 성폭력 범죄는 미해결 상태다.

범죄자들은 서구뿐 아니라 광산구와 동구, 북구 등 광주지역 원룸촌 전역에서 활보하고 있다.

지난 3일 밤 9시20분께 광산구 월계동 Y원룸 1층에 사는 L(여·26)씨의 집에 누군가 침입, 이씨를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L씨는 경찰에서 "인기척에 잠을 깼더니, 170㎝의 키에 20대로 보이는 남성 1명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흉기로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원룸촌이 범죄의 표적이 되자 주민들은 원룸촌에 대한 순찰 강화와 방범용 CCTV 및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광주지역 원룸 밀집지역인 서구 쌍촌동과 동구 지산동 일대를 돌아본 결과, 원룸 주변에는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문만 부착된 채 방범용 CCTV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동구 지산동 J원룸에 사는 여대생 이모(여·21)씨는 "세상이 너무 무섭다. 무더위에도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세입자 서 너 명이 'CCTV 작동중'이라는 안내문이라도 붙여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했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무고·위증·범인도피〉

'거짓말 범죄' 크게 늘었다

작년비 21%…광주지검 상반기 123명 기소

광주·전남지역의 허위 증언 및 고소 사범이 최근 2년새 67%나 늘어나는 등 이른바 '거짓말 범죄'로 인해 정당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무고와 위증, 범인도피 등 3대 '거짓말 사범'은 132명으로, 검찰은 이 가운데 123명을 기소했다. 유형별로는 무고가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증 39명, 범인도피 33명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대 '거짓말 사범'(111명)보다 20.9%(21명) 늘어난 것으로, 2년 전인 2007년 상반기(79명)에 비해선 67%(53명)나 급증했다.

특히 범인도피의 경우 속칭 '바지사장'을 앞세운 불법 오락실의 성행과 음주·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2년새 4.7배나 늘었다.

노모(43)씨는 불법 오락실 업주인 후배 문모(38)씨로부터 "'바지 사장'으로 조사를 받아주면 200만원의 사례금과 함께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모(36)씨는 지난해 7월 장인이 음주단속에 걸린 뒤 측정 불응으로 기소되자 "운전은 장인이 아닌 처남이 했다"고 위증했다가 기소되는 등 '거짓말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광주지검 김영규 공판부장은 "거짓말로 인한 선의의 사법피해자를 예방하고 공판중심주의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거짓말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나원참 〈7847〉 김종두

광주 서구 주말 아파트 화재 9명 사상

소방차 진입 늦어져 피해 키워

지난 4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W아파트 6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아파트 외벽이 불에 탄 채 검게 그을려 있다. 〈광주서부소방서 제공〉

주말인 지난 4일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순식간에 번진 불로 아파트 7채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날 화재는 아파트 주차장 소방차전용도로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대형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더욱 화를 키웠다.

◇화재 발생=이날 오전 7시20분께 서구 화정동 W아파트(계단식) 6층에 사는 Y(53)씨의 집에서 불이나 내부면적 139㎡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추산 4천5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이 아파트 7층에 사는 염모(여·67)씨가 화염을 피해 탈출하다 추락해 숨지고, Y씨 등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또 이 아파트 5층~12층 건물 외벽과 승강기 앞 벽면이 검게 그을렸다. 불이 나자 소방차 펌프차 8대, 고가사다리차 1대, 탱크차 2대 등 소방차 17대와 소방대원 등 92명이 현장에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출동과정에서 화재현장으로 진입하는 소방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초기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화재 신고접수시간은 오전 7시20분. 소방차 한 대가 화재 현장에 최초 도착한 시간은 오전 7시23분이다. 또 화재현장에서 2.8㎞ 떨어진 서부소방서에서 출발한 소방차는 6분 뒤에 도착했다. 하지만 출동 당시 이 아파트 소방차 전용도로에 차들이 주차돼 있는 바람에 진화작업이 늦어졌다.

광주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신고접수 후 곧바로 출동했으나 진입로가 왕복 2차선으로 비좁은데다 주말이어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많아 진입하는데 애를 먹었다"며 "진입이 어려운 고가 사다리차의 경우 인근 아파트에서 진화작업을 벌여야 했다"고 말했다.

◇화인은 미스터리=이날 화재로 아파트 한 채가 15분만에 모두 소실됐다. 하지만 화인(火因)과 발화지점을 밝혀낼 수 없을 만큼 아파트가 전소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소방대원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목재와 달리 콘크리트 구조로 된 아파트의 경우 발화지점부터 서서히 번져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화재는 거의 동시에 연소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 1차 감식결과, 전기 누전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Y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가스밸브 잠금장치 작동 ▲고무호스 훼손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베트남 도피 금은방 강도 신병 확보

8일께 국내 인도

4인조 금은방 강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남부경찰은 범행 한 달여 만에 베트남으로 도피한 편모(50)씨의 신병을 이르면 8일께 넘겨받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폴은 5월 초 베트남으로 도피한 금은방 강도사건 주모자로 알려진 편씨의 소재를 최근 확인했으며,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오는 8일께 인천공항을 통해 편씨의 신병을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또 다른 공범 노모(55)씨의 신원도 파악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용의자 1명을 검거했다.

이로써 지난 4월 발생한 금은방 떼강도 사건 용의자 4명은 모두 검거되거나 신원이 확보돼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피중인 편씨의 신병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국내에 도피중인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4인조 금은방 강도는 지난 4월 15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남구 구동 김모(38)씨 형제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들어가 흉기로 김씨 형제 등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뒤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9년전 진료 불만 병원에 불 질러

광주남부경찰은 9년 전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병원에 찾아가 대기실 의자에 불을 지른 지모(48)씨를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남구 모 병원 환자대기실에 놓인 소파에 시너(500㎖)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지씨는 산업재해로 눈을 다쳐 광주 C대학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지난 2000년 3월께 자신의 담당의사인 서모(37)씨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지씨는 "9년 전 (이 병원 관계자가) 다른 병원에서 나를 치료할 당시 내 눈 신경을 건드려 현재까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성매매 갈취' 4명 영장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갈취한 정모(16)양 등 4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5월 11일 새벽 2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조모(36)씨를 광주시 동구의 한 모텔로 유인,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200만원을 빼앗는 등 8차례에 걸쳐 모두 1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피해자에 물린 상처로 강도 덜미

쌍나팔

○…강도짓을 한 뒤 달아난 10대 청소년이 피해자에게 물린 상처 때문에 덜미.

○…광주북부경찰은 5일 김모(15)군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김군은 지난 4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 앞 길에서 주부 조모(26)씨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 65만원과 휴대전화 등이 담긴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

○…경찰은 "범인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목을 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하던 중 경기도 오산역 주변에 있던 김군의 팔목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검거./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